

"얼마예요 비영리, 비영리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로 또다시 주목..."

- ▶ 회원 회비 관리 및 특허 받은 인공지능 자동분개회계처리를 통해 비영리 단체들의 경영 지원
- ▶ GS 1등급 인증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대상 도입 솔루션 1순위로 급 부상

최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익법인 결산공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산공시란, 공익법인이 재무상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금 사용 여부를 증빙하는 것이다. 전년에 1만 2천 개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결산을 공개했으며, 이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로 인해 회계 프로그램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예요 비영리' 솔루션이 비영리단체에게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전 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되어, △회계, △예산, △수입 지출, △후원금 관리, △인사 급여, △재무제표, 세무 신고 등 모든 업무 기능을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AI 기능으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세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세무사와 높은 업무 효율을 보장하고 다양한 비영리 기관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예요 비영리 솔루션은 회원의 회비 관리 기능에 최적화 되어 있다. 기부금 수입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에게 회원 회비 관리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얼마예요 솔루션은 후원자 및 회비 성격을 구분해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CMS)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금처리된 회비 내역을 자동 전표처리해 회계장부로 전송하는 등 비영리 법인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허를 획득한 자동회계 분개 기능은 △다양한 출처의 자금 분류 처리 △복잡한 회계처리의 간소화 △오류 최소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관리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에 효과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얼마예요 비영리 솔루션은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굿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을 획득하며,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까지 인정받았으며, 정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정식적인 공급업체로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기도청의 '비영리단체 회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공익활동단체 대상 회계프로그램 도입 사업을 진행한 사례이며, 이미 500개 이상의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솔루션 도입 및 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는 “여전히 재정적, 인력적 어려움으로 솔루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소규모 비영리 단체가 많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용이 편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무 통합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